

# 航路 개척위해 뜻을 올리며



회 장 **具 滋 斗**

戊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껏 가보지 못했던 새로운 航路를 개척하기위해 이제 우리는 다시 뜻을 올렸습니다.

激動과 波瀾의 거친 파도가 기다리는 항해에 나서며 우리의 각오는 더욱 결연하고 우리가 도달할 목적지에 대한 비전 또한 확고합니다.

작은 일이나마 人類에 공헌하고 자신이 맡은 일로 組織과 나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각자의 使命感을 한 데 모을 때 우리가 함께 이뤄낼 일은 보다 크고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國運개척의 관건이 되고 있는 중요한 産業에 종사하고 있다는 긍지가 우리의 位置를 확인하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利益과 더불어 社會共同的 이익, 그리고 國益이 늘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이익과 작은 利害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발전을 추구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會員의 權益을 향상시키는 일이 곧 産業을 활성화시키는 일임은 일반적으로 자명한 論理라 여겨집니다. 개개의 企業에 보탬이 되는 일이 많을수록 업계전체가 크고 국가는 더욱 부강해 지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個人的 이득이 공동의 이익에 보탬이 되지 않거나 相反되는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때 우리는 보다 큰 안목으로 社會와 國家를위해 한발짝 물러 설 수 있는 아량도 가져야 하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는 電算網事業을 비롯한 情報通信事業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가치아래 協會를 발족시켰고 협

회 출범이후 이같은 우리의 意志를 실현시킬 수 있는 길을 여러모로 모색했습니다.

會員 여러분의 희생적인 협조와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업계의 큰 관심에 힘입어 협회는 출범 첫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뚜렷한 발전의 靑寫眞을 마련하고 課業달성의 方法을 구체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협회는 회원의 권익과 産業의 발전, 그리고 국익의 신장을 염두에 둔 많은 事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電算網技術動向 및 각종 調查統計자료의 제공, 附加價值通信網事業의 활성화, 소프트웨어 流通體制의 확립, 기술개발資金의 지원 추천 등 구체적으로는 모두가 회원과 업계의 이익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업들입니다.

이와같은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실현하는 데는 회원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가 요망됩니다. 相關기관 지원도 더 구체화 되기를 바라며 업계의 관심 또한 더욱 확산될 것을 기대합니다.

지난 해 말 창간되어 첫 新年號를 내게 된 「정보화사회」에도 올 한 해 내내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정보화사회」는 올해를 회원 여러분과 업계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확고한 자리를 굳히는 해로 알고 정진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家庭에 큰 꿈이 열매맺고 업계가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